



개성인삼농협 조합장 김인수

최적의 입지조건 살려 最高의 조합 육성

개성인삼 홍보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지원 절실



“근검절약, 손실 최소화, 중점 노력, 비용절감, 이익증대가 개성인삼농협을 지난해 말부터 흑자 경영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한 요인이다. 조합원과 임직원이 단합하여 흑자를 내고 정상궤도를 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2006년11월27일 취임해 2010년 11월26일까지 4년의 임기를 시작한 개성인삼농협 김인수(57·사진) 조합장은 30여년간 인삼농사와 3년6개월의 개성인삼농협조합 이사로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잠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조합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

연말과 올해 1/4분기 흑자를 기록하여 조합원들은 조합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흑자 경영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개성인삼농협조합은 조합장 1명, 이사 10명, 감사 2명, 대의원 60명과 직원 154명,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2천652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합원을 지역별로 보면 포천 309명, 연천 405명, 양주 38명, 양평 38명, 가평 4명, 의정부 37명, 동두천 9명, 남양주 5명, 구리 1명, 기타 114명 등 960명이다.

개성인삼농협조합의 주요사업 기본방향은 ▶인삼 생산기반 구축 ▶조합운영 극대화 ▶인삼제품 품질 경영체제 확립 ▶산지유통 전문조직 유통확대와 사업 추진 ▶조합원 실익 증대 ▶선진조합 진입 기반 조성 ▶개성인삼의 세계화 추진 ▶수입 개방 대비 차별화 추진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목표는 ▶인삼재배 및 신경작 기술 공급 ▶양질인삼 생산체제 확립 및 경작기술 보급 ▶경작자재의 적기 공급 ▶계약재배 활성화 ▶신용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자금 조성 극대화 ▶하나로마트의 운영 활성화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및 유통판매 기반 구축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 마케팅 추진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의 체계화 ▶가공 기술 및 지도 ▶조합원들에 대한 환원사업 확대 및 선진 조합 육성 등이다.

현재 개성인삼농협조합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가공 소화면적이 늘어났지만 가공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최고의 우량 원료가 생산되는 지역이 경기북부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인삼을 정작하고 있는 조합원들로부터 개성인삼농협조합의 여건은 매우 좋다.

따라서 김 조합장은 18억원을 들여 일동면에 가공시설 설계에 들어갔으며 43번 국도변에 6년근

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설매장을 오픈 할 계획이며 한수이북동 북부지역 농산물물류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개성인삼농협조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공공장 시스템을 완전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의 시설은 매우 뒤떨어지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소득원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산물이나 인삼이다. 특히 개성인삼은 상품이 아주 우수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포천시에 생산되고 있는 개성인삼을 서울에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양적묘사의 80%가 포천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것을 활성화해야 한다. 백토를 보조해 주어야 한다. 백토 구입비의 50%라도 지원해준다면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특화사업단지를 조성해 추진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추운 지방에서 자란 묘목이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지만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자란 묘목은 추운 지방에 오면 적응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양적묘사의 최적지역인 포천시를 양적묘사의 특화단지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 북한 개성에서의 인삼재배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차원에서 투자보

장이 되어야 한다. 개성에서의 인삼재배가 성공한다면 큰 수확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남북경협 등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포천이나 경기도가 앞장서 주어야 한다.

현재 개성인삼은 대체작물이 없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포화상태가 되어 가격폭락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여건 마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에 5개의 인삼조합이 있다. 경기도는 가장 우수한 조합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해 지원해 주어야 한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실익 사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급여까지 동결하며 조합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성인삼농협조합의 가공시설은 어룡동 제1공장, 기산리 제2공장, 은대리 제3공장에서 홍삼, 백삼, 홍삼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제품별 매출현황은 1차 제품 홍삼류는 9억600만원, 피부백삼류는 6억1천200만원이며 2차제품 홍삼농축액은 9억6천700만원, 홍삼차류는 1억5천400만원, 분말류는 5천700만원, 홍삼액상류는 2천400만원, 홍삼음료수는 2억7천400만원, 홍삼정향 및 캡슐류는 2억1천100만원, 당질인삼제품류는 1억800만원, 홍삼제품류는 1억800만원, 기타제품류는 400만원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내촌 참숯가마

동양최대의 참숯가마 체험장



대표 이임열

관광도시 포천에는 광물수목원을 비롯해 산정호수, 배어스타운, 온천, 이동갈비, 막걸리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최근 들어 포천의 제2명사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내촌 참숯가마(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118-4, 대표 이임열)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참숯가마로 바쁜 일상생활에 찌든 현대인들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피부미용과 건강을 지켜주며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참숯의 효능은 익히 알고 있듯이 정화작용·

잡는 웅장한 폭포를 만날 수 있다. 약 250여m의 높이를 자랑하는 폭포는 보는 이의 가슴을 탁 트이게 하며 고객들이 즐기는 공간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그 밖의 부대시설로는 가족, 연인, 친목모임 등에 최적인 객실보유와 다양한 용도의 참숯시장, 독특한 음식과 다양한 메뉴를 만날 수 있는 음식점 등이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또한 고객들이 시간에 제한 없이 1,000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넓고 편리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내촌 참숯가마는 2006년 6월에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목탄(백탄), 전통식 활용수가 기능성 제품이라는 인증서를 획득하였다.

“숯은 자연이 인간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참숯가마 체험 후 몽골텐트에서 편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다 보면 한결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참숯가마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을 갖게 된다고 한다.

참숯가마 체험 후 가벼운 몸으로 산책을 하거나 포천의 특산물인 새송이 버섯과 인근에 위치한 한국동충하초농장에서 생산되는 동충하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며 참나무를 이용하여 숯을 구워내는 과정도 볼 수 있다.

내촌 참숯가마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참숯은 약 1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음식점, 냉장고

숯의 신비한 효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하룻밤을 쉴 수 있는 편안한 객실 마련

가습축착·탈취기능·전자파차단·제독기능·습도조절·약용성분·항균기능 등이 뛰어나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참숯을 이용한 참숯가마를 설립하기까지는 이 대표의 남다른 열정이 돋보인다. 이 대표가 예전에 건축업을 하면서 숯을 굽는 과정을 우연히 목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숯을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동시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며 결국 용역업체에 의뢰해 가능하다는 해답을 얻고 참숯가마체험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참숯가마에 알맞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많은 지역을 다녔던 답사하면서 위의 곳을 선정해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지난 2004년 11월에 개장된 내촌 참숯가마는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 시야를 사로

탈취 등 다양한 용도로 포장·판매되어 매출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참숯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 찜질방과 사우나로 사용하여 수천 여 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있다. 내촌 참숯가마는 현재 약 40여명의 직원들이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파르름 주어진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의 직원들은 인근 지역 주민들로 지역 고용 창출에도 일조하고 있다. 고객 대부분은 서울 고객이며 청량리, 강변역, 구리, 토영지구 고객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광명내에서 하차해 올 수 있다.

문의 전화 031-533-6477-8.
홈페이지 www.nxsa.com/주소창에 “내촌 숯가마”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지금 지사 정

두 아이 대학 학자금 마련전략



재테크

내 아이가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빛나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다.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라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뒷받침하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가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2.7%에서 2006년 14.1%로 증가했다고 한다.

초등 5학년인 딸과 2학년인 아들을 두고 있는 K 주부는 아이들 교육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남편 월급만으로 생활하는데 애들이 커갈수록 교육비가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면서 요즘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다. 아마도 재취업에 나서는 주부들의 대부분이 이런 이유일 것이다.

그럼 대체 한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2006년 한 증권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소 7,400만원에

서 최대 1억 5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2억 이상 자녀 교육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 무서운 것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인데 매년 물가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금년만 하더라도 최소 6%에서 최대 14.5%까지 인상이며 학기 초 대학등록금과 학생들의 생활비가 컸었다. 그러나 1년간 대학등록금만 1천만원에 타지역에 유학하는 경우 하숙비가 더 필요하고 교재비, 생활비까지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가 된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준비해

야 아이들 대학교육을 시킬 수 있다.

K씨 가정의 대학등록금 준비 계획을 세우기 위해 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시점에 필요한 자금과 월 지출액을 살펴보았다.

학자금 마련을 위해 연 5% 금리의 은행에 저축한다면 월 13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된다. 가장 흔자의 월급으로 매월 이만큼의 저축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그럼 어떻게? 다음의 원칙을 따라해 보자.

①저축보다는 투자로 ②단기보다는 장기로 ③단리 상품이 아닌 복리 상품으로 ④매월 규칙적으

로 ⑤세넛돈 등 자녀들이 받은 돈을 종자돈으로 ⑥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라는 문제를 대지 말고 ⑦여유가 생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당장 시작할 것.

교육자금 마련에 적합한 금융 상품은 어린이보험액유니버설보험과 펀드다. 두 상품은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다. 교육비 마련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한다.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야

직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 주택 씨는 은행금리가 떨어져 수입이 절박 이하로 있기 때문에, 예금을 찾아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1.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2006.1.1 이후 발생분부터)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제청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가 절반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단독주택 1를 가지고 있으면서 2층, 3층을 전세 또는 월세로 준 경우나,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면서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 등은 부유한 주택들이 고가주택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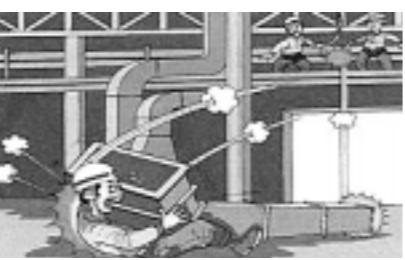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자료제공 정
031-870-45

해 발생

2006년 0월0일(0요일) 부산광역시 소재 급·배기 설비 제작설치 작업장에서 급·배기 설비 제작설치 담당자인 피해자가 수직 배기 트(400 750 750 8,000, 421)를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중 설치 중인 수직 배기 트가 하하여 피해자와 충돌, 사한 재해인.

해 발생
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 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지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미실시.
나. 와이어로 단말 리 방법 불량
· 중량물의 인양에 사용하는 와이어로 단말 리 방법은 작업중(트 중량 충격하중 등)에 수 있도록 규정된 아 기? 축 또는 이러한 것과 동등 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것 이어야 하나 근로자의 경험적 방법에 의해 제작된



것을 사용.

해 대
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 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나. 와이어로 단말 리 방법 개선
중량물의 인양에 사용하는 와이어로 단말 리 방법은 작업중에서 수 있도록 규정된 아 기, 축 또는 이러한 것과 동등 이상의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자료제공 국 공 단
기 지 031-86-601

국민연금 Q&A

장애평 발생 즉시 장애연금 받을 수 있나?

초진일부터 2년 지나야 60세 넘으면 노령연금 중 선택해야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곧바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원치된 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한다.

병원치료가 일시에 끝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어떻게 될까, 완치될 때까지 기다려야하지만, 만약 치료받는 기간이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면 2년 경과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

는 동 부속병명 종사자, 국공립 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자문의사로 위촉된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 연금급여가 가입자의 소득상실 또는 감소의 경우엔 그에 상당하는 생계보조 목적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연금급여 2종으로 지급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장애연금 수령자는 장애가 존속하는 한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 연금을 받는 동안 장애가 호전된다면 노령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